



초대석

최선을 다한 후..

제44회 외무고등고시 수석합격 김 현 주

- 1985년 10월 생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제44회 외무고시 수석합격



Q 수석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차 시험을 마치면서 혹은 발표직전에 수석합격을 예상하셨나요?

A 감사합니다. 솔직히 2차 시험 끝나고 나서는 마지막 날 경제학 시험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수석합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Q 이번 제44회 시험(제2차시험)에서 69.55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으셨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제 생각에는 과목별 점수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과목에서 비교적 고른 점수를 받은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요즘은 각종 고시 준비과정에서 학원 강의와 스터디가 활성화 된 듯합니다. 수험기간 동안 이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학원 강의는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데에 활용했습니다. 학원 강의가 고시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외에도 졸업하기 전에 학교에서 수강했던 관련 수업이 기초를 닦는데에 큰 도움이 되었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 단어 암기, 영어 모의고사, 독일어 독해, 국제법 조문, 국제법 모의고사 스터디를 했습니다. 단어 암기 스터디는 단어집을 하나 정해서 일주일에 한번 두챗터씩 암기하고 서로 문제를 내서 풀고 채점하는 방식으로 했고 모의고사 스터디는 모의고사를 한회씩 풀 다음에 서로 조언해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국제법 조문 스터디는 국제법 조문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문만 골라서 노트에 정리한 다음에 백지에 그대로 암기해서 적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특히 영어, 독일어는 학원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서 나태해질 위험이 있었는데 스터디 덕분에 꾸준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법은 분량이 많아서 부담이 많았는데 조문 스터디를 통해 조문 암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나중에 국제법 시험을 볼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구체적으로 PSAT(공직적성시험테스트)는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하였고, 기타 이와 관련된 조언을 해주신다면...

A PSAT은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집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처음 PSAT 기출문제집을 구입해서 풀어보았을때는 상당히 점수가 잘나와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PSAT이 매년 조금씩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방심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출문제집은 몇번씩 다시 풀었고 서점에서 파는 PSAT 모의고사집도 풀었습니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 자료 해석 영역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기 때문에 자료해석은 모의고사집을 몇권 더 사서 풀었습니다. 저는 PSAT 준비에 있어서는 기출문제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수많은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지만 어떤 모의고사 문제집도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를 여러번 풀다보면 한번 틀렸던 문제를 다음에 풀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해보니 다음번에도 틀린 문제를 또 틀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틀린 문제만 모아서 다시 풀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Q 외교관으로서 당연히 외국어, 그 중에서도 영어가 중요한데, 평소에 외무고시와 관련하여 영어공부는 어떻게 하였고, 일반적으로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보시는지요?

A 각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제 공부방법을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어는 단어암기, 모의고사 스터디를 했습니다. 두 스터디 모두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스터디였고 그외에는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하는 영어 공부 방법은 잡지를 보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The Economist를 정기구독해서 읽었는데 모든 기사를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요기사와 관심있는 기사만 읽었습니다. 잡지를 볼 때는 따로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쉬고 싶을때나 학원 강의 쉬는시간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잡지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단어장에 적어놓고 틈틈이 암기했습니다. 영어 단어장을 만들때는 단어만 적지 않고 문장도 같이 적었고 암기할때도 가능하면 그 문장을 암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기 전에 인터넷으로 CNN 등 외국뉴스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Podcast를 많이 활용했는데 이를 이용하면 쉽게 외국뉴스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인터넷으로 외국 뉴스를 보려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론 프로그램이나 연설동영상 등은 영어 공부도 하고 국제정치학의 시사이슈를 정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Q 우문이지만 나름대로의 수험공부에 대한 비책(?)이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수험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A 비책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제 생각에는 2009년에 처음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에는 2차 과목을 미처 다 보지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갔기 때문에 합격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답안지를 쓰고 나왔고 점수확인을 한 이후에는 각각 과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마음가짐을 일년동안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험공부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정말 많겠지만 그 중에 저는 자신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험생활에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해질때는 자신감을 북돋는 책을 읽거나 연설 동영상을 보고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Q 수험생활 중에 힘들거나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수험생활 중에 큰 슬럼프는 없었지만 중간중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거나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나 혼자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번 하기도 했고 학원 모의고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후에 최고답안을 보면서 자괴감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을 털어놓기도 했고 작년에 합격한 친구에게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고맙게도 친구들이 언제나 너는 꼭 합격할 것이라고 격려해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외무고시의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다른 고등고시 시험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면접시험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제44회 실제 면접시험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주로 질문 내용은 어떤 것들 있었습니까?

A 2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같은 과 동기, 후배들과 함께 면접스터디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3번씩 스터디를 했는데 집단토론, 협상, 개인 프레젠테이션, 영어토론 등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2차 발표 이후에는 2차 시험 합격자 중 꽤 많은 인원이 모여서 스터디를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외에도 면접준비책을 여러권 사서 혼자 읽었습니다. 실제 면접 시험은 한국어 토론, 영어토론, 한국어 프레젠테이션, 한국어 인성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박 2일 면접이 도입되면서 토론 시간이 늘어났고 토론과 프레젠테이션에서 주어지는 사전자료 양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성면접은 사전조사서에서 주어진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Q 대륙별로 보았을 때 어느 지역에 관심이 많고, 어떤 방향으로 외교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실 계획인지요.

A 저는 유럽연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Q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공부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답안지를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올해 한문제는 정말 잘모르는 문제가 나왔지만 그래도 끝까지 답안지 10장을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써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Q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A 격려를 아끼지 않아준 가족, 친구들, 함께 공부한 선후배, 동기들,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